

신라 副君과 月池宮*

홍 승 우**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신라 동궁이 왕위계승권자인 태자의 거처가 맞는지와 『三國史記』와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文」에 등장하는 月池宮이 東宮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憲德王 14년에 興德王이 책봉된 副君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부군은 태자의 이칭으로 널리 사용된 용어이지만, 헌덕왕대에 별도의 태자가 있었기에, 왕위계승권자인 태자와 동일한 실체가 아니라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이 주장을 근거로 동궁이 태자궁이 아니라거나, 월지궁과 동궁이 동일한 실체가 아니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우선 『三國遺事』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에 나오는 부군을 고찰하였다. 이 부군이 신라 당대에 사용된 용어인지를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인 왕자의 의미로 사용된 태자와 구분되는 지위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의미는 왕위계승권자인 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흥덕왕의 경우만 다른 『三國史記』의 태자 책봉기사들과 다르게 부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부군이 단순한 태자의 이칭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흥덕왕이 된 부군은 헌덕왕이 조카 애장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사건과 관련하여 자칭한 것으로 보이는 부왕이라는 칭호와 동일한 것이다. 신라에서는 전왕과의 실제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왕위계승권자를 태자로 칭했지만, 이미 당에 널리 알려진 헌덕왕이 자신을 태자라 칭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신 부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그것이 흥덕왕이 된 부군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호칭이었고, 그 실체는 태자였기에 곧 다시 태자 호칭이 사용되었다.

흥덕왕이 된 부군은 헌덕왕대 부왕과 동일한 것이고 왕위계승권자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그가 부군이 된 후 들어간 월지궁이 태자의 거처 동궁과 동일한 실체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주제어] 副君, 太子, 副王, 月池宮, 東宮, 興德王, 憲德王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헌덕왕대 부왕과 부군 |
| II. 『삼국유사』 「보길도태자전기」의 부군과 태자 | IV. 맺음말 - 동궁과 월지궁 |

* 이 논문은 2017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명지대 객원교수 / knows999@chol.com

I. 머리말

동아시아에서 東宮은 유교 예제상 왕위계승권자인 太子의 거처이자 공적 활동을 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태자 그 자신을 일컫는다.¹⁾ 그러나 동궁이 처음부터 태자의 거처라는 의미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漢代까지 문헌을 보면 동궁이 태자의 거처가 아니라 남궁, 북궁과 같이 방위에 입각한 보통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때문에 궁의 주인으로서 동궁이란 호칭 역시 태자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태자의 거처가 관념과 일치되기 시작한 것은 西晉부터이다. 이후 南北朝時代를 거치면서 태자의 위상과 역할이 증대되면서 유교 예제상의 동궁 관념을 실체화하면서 실제 거처로서의 동궁이 자리 잡았고, 나아가 태자의 정치적 활동과 함께 태자 관부로서 동궁의 개념이 확장·발전했다. 또한 수당대에 이르면 왕궁과 떨어진 곳에 별도의 궁을 지어 동궁으로 삼았던 이전과 달리, 황제궁과 일체화되어 건립되고 운영되었다.²⁾

신라 동궁 역시 중국 동궁의 일반적인 관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문무왕 19년에 처음 만들어진 동궁을 태자가 거처하는 궁으로 파악하였다.³⁾ 그리고 그 정식 이름 혹은 별칭이 月池宮이며, 주요 건물로 臨海殿이 있었고, 현재 사적 제18호로 지정된 '신라 東宮과 月池' 유적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⁴⁾ 하지만 신라 동궁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다. 신라 동궁이 태자의 거처가 아니라 단순히 방위상 왕궁의 동쪽, 혹은 왕경에서 동쪽에 위치한 궁의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⁵⁾ 이러한 주장들은 주로 동궁의 주요 전각인 臨海殿이 왕의 연회장으로 사용되었음에 주목하여,⁶⁾ 동궁이 태자의 거처이자 활동 공간이 아니며, 별도의 왕궁 혹은 왕궁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었다.⁷⁾

그러나 동궁 혹은 동궁 구역에 苑囿가 있고 그곳을 왕이 사용하는 사례는 일본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드문 일이라 할 수 없다.⁸⁾ 특히 왕궁과 동궁이 별도의 궁으로 구분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 원유지의 공

1) 『春秋左傳正義』隱公 3年 冬條, “衛莊公娶于齊東宮得臣之妹, 曰莊姜。[得臣, 齊太子也。太子不敢居上位, 故常處東宮。]疏……得臣爲太子, 云常處東宮者。四時東爲春, 萬物生長在東。西爲秋, 萬物成就在西。以此君在西宮, 太子常處東宮也。或可據易象, 西北爲乾, 乾爲君父, 故君在西。東方震, 震爲長男, 故太子在東宮也。)”

2) 이상 중국 왕조들의 동궁에 대해서는 岡部毅史, 「六朝建康東宮攷」, 『東洋史研究』 72: 1, 2013과 岡部毅史, 「漢晉五胡十六國期の東宮と西宮」, 『中国都市論への挑動』, 汲古書院, 2016 및 최재영, 「隋唐長安城 東宮의 구조와 기능: 魏晉南北朝 都城의 東宮과 연관하여」, 『역사와 세계』 51, 2017을 참조할 것.

3)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9年 8月條, “創造東宮, 始定內外諸門額號。”

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東宮과 月池Ⅱ 발굴조사보고서』, 2014, 29~31쪽.

5) 尹武炳, 「新羅王宮考」, 『학술인문문집(인문·사회과학편)』 49: 1, 2010, 111쪽; 최영성, 「月池宮 관련 자료 재검토: 東宮은 太子宮이 아니다」, 『東洋古典研究』 55, 2014, 179쪽.

6) 朴景子, 「統一新羅時代 雁鳴池 造景樣式에 關한 研究」, 『文化史學』 4, 1995, 48~49쪽.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孝昭王 6年 9月條, “宴羣臣於臨海殿”;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惠恭王 5年 3月條, “燕群臣於臨海殿.”;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憲安王 4年 9月條, “王會羣臣於臨海殿, 王族膺康年十五歲 預坐焉.”;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憲康王 7年 3月條, “燕羣臣於臨海殿, 酒酣, 上鼓琴, 左右各進歌詞, 極歡而罷.”; 『三國史記』卷12, 新羅本紀12 敬順王 5年 2月條, “太祖率五十餘騎, 至京畿進謁, 王與百官郊迎, 入宮相對 曲盡情禮. 置宴於臨海殿.”

7) 이런 주장은 일찍부터 제기된 바 있다. 신라 동궁을 태자궁이 아닌 동쪽 궁으로 보고 정사를 다스리는 궁이 아닌 잔치를 베풀고 유희하는 별궁으로 파악하는 견해와(鄭在鏞, 「新羅 東宮의 苑囿에 對한 考察」, 『考古美術』 138·139, 1978, 198쪽), 동궁을 동쪽 궁이라는 방위에서 나온 명칭으로 보며 태자궁은 이 동궁 내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 등이 있었다(高敬姬, 「雁鳴池名稱에 對한 考察」, 『考古歷史學志』 16, 2000, 520~521쪽).

8) 일본 平城宮의 東院(南院)이 좋은 사례이다. 동원은 평성궁이 건설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조영되었던 정원이었는데, 聖武가

유는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동궁이 태자의 거처가 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신라에서 동궁이 처음 건립된 문무왕대에는 중국 왕조들에서 이미 동궁이 유교 예제상 태자궁이라는 관념이 확고히 성립해 있었고, 신라에서 동궁의 설치를 전후해서 유교적 관념에 입각한 왕권과 유교 의례가 강화됨을 볼 수 있어, 동궁이 태자의 거처궁으로서 건립되었던 것은 분명하다.⁹⁾

하지만 여전히 동궁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동궁과 월지궁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월지궁이 곧 동궁이라 보고 있다. 신라 동궁을 건립 5년 전의 宮苑池 공사와 연동하여 이해하여 왔기 때문으로,¹⁰⁾ 사실상 신라 왕궁인 월성 안팎에 이 궁원지로 볼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월지 유적밖에 없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였고,¹¹⁾ 『東國輿地勝覽』의 기록도 큰 역할을 하였다.¹²⁾ 또한 안압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 유적이 신라 동궁이었다는 인식을 일반화시켰다.¹³⁾ 이 발굴 조사에서 동궁의 주인인 ‘太子’와 동궁에 속한 관부인 ‘東宮衙’와 ‘洗宅’, 또 동궁관 중 하나인 龍王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龍王’이 적혀 있는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다.¹⁴⁾

나아가 『삼국사기』 직관지 중에 동궁 소속 관부로 月池典, 月池嶽典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월지의 조경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파악한 후, 안압지가 곧 월지이며, 동궁의 공식적인 궁명 혹은 별칭을 월지궁으로 파악하게 된다.¹⁵⁾ 더하여 월지(안압지) 서쪽 일련의 건물지를 『동국여지승람』에 입각해 臨海殿으로 보고, 이 임해전을 바로 월지궁의 중심 건물로 이해하였다.¹⁶⁾

무엇보다도 월지궁을 동궁의 이름으로 본 결정적인 근거는, 憲德王 14년(822)에 興德王이 興德王이 왕위 계승권자 태자의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던 副君으로 책봉된 후 거처가 된 곳이 월지궁이라는 『三國史記』의 기사였다.¹⁷⁾ 부군이 곧 태자이므로, 부군이 된 이후 들어가 살게 된 월지궁이 태자의 거처인 동궁이라 이해

동궁이 되면서 동궁 건물에 부속된 정원이 되었고, 천황으로 즉위한 이후로는 南院이라 불리며 그의 재위기간 동안 향연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심지어 아베내친황이 동궁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조정의 향연과 의례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신라 임해전과 유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강은영, 「고대 일본의 東宮에 관한 연구」, 『일본역사연구』 44, 2016, 25~28쪽 참조).

- 9) 홍승우, 「문헌으로 본 新羅의 東宮과 그 운영」, 『문헌으로 보는 신라의 왕경과 월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 230~233쪽.
- 10)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4年(674) 2月條, “宮內穿池造山 種花草 養珍禽奇獸”
- 11) 월성 내에 2개의 연지가 더 있으나 그 규모가 월지 유적에 비해 현저히 작다(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月城 地表調査報告書』, 2004, 118쪽).
- 1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1, 慶尙道 慶州府, “雁鴨池在天柱寺北. 文武王於宮內爲池, 積石爲山, 象巫山十二峰, 種花卉養珍禽. 其西有臨海殿, 其礎砌猶在田畝間.” 『東京雜記』에도 거의 동일한 기록이지만, 애장왕 5년에 임해전을 重修했다는 기록이 추가되어 있다(“不知直於何時, 而哀莊王五年甲申重修.”).
- 1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1978.
- 14) ‘신라 東宮과 月池’ 유적 출토 문자 자료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高敬姬, 「新羅月池出土在銘遺物에 對한 銘文研究」,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1993에 실려 있고, 문자 자료들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홍기승, 「경주 월성해자·안압지 출토 신라목간의 연구 동향」, 『木簡과 文字』 10, 2013에 정리되어 있어 참조할 수 있다.
- 15) 韓炳三, 「雁鴨池 名稱에 關하여」, 『考古美術』 153, 1982, 41쪽; 高敬姬, 앞의 논문, 2000, 522쪽; 三池賢一, 「新羅內廷官制考(下)」, 『朝鮮學報』 62, 1972, 54~58쪽.
- 16) 李基東,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157쪽. 임해전에 대해서는 전덕재, 「신라 東宮의 변화와 臨海殿의 성격」, 『사학연구』 127, 2017, 35~47쪽 참조.
- 17)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14年 正月條, “以母弟秀宗爲副君, 入月池宮.[秀宗或云秀升.]”

한 것이다.

하지만 근래 이 월지궁과 동궁의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중국의 왕실 苑池인 太液池는 신신사상에 입각해 ‘海’를 상징해서 만든 것으로, 실제 인근 전각 명칭이 臨海殿임과 발굴 결과 확인된 축조 양상을 볼 때 안압지의 당대 명칭이 월지가 될 수 없으며, 실제 월지는 월성 복단의 해자를 통일 직후 정원화한 연못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안압지가 월지가 아니었고, 따라서 월지궁은 동궁의 이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¹⁸⁾

그리고 이러한 문제 제기의 바탕에는 副君이 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즉 월지궁과 태자궁으로서의 동궁을 동일시한 통설들의 큰 근거는 흥덕왕이 태자인 副君이 되면서 월지궁에 들어갔다는 기록이다. 그런데 이 부군이 태자가 아니며 헌덕왕의 아들인 별도의 태자가 당시에 존재했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있었고,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월지궁이 동궁의 이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군의 성격과 실체에 대해 파악해야만 한다.

본고에서는 월지궁과 태자 거처로서의 동궁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월지궁을 거처로 삼았던 副君의 실체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다. 먼저 부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성격을 추정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월지궁과 동궁의 관계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II. 『삼국유사』 「보질도태자전기」의 부군과 태자

흥덕왕의 부군 책봉과 월지궁 입궁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함께 緣眞傳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녹진전에서는 부군이라는 호칭 대신 儲貳, 儲君라 적고 있다.¹⁹⁾ 저이나 저군 모두 태자의 이칭이므로 부군을 太子의 이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²⁰⁾ 부군이 태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²¹⁾ 이에 따르면 부군은 왕위계승권과는 무관한 중요한 정치적 위상을 가진 지위일 뿐이라는 것

18) 김병곤, 「雁鳴池의 月池 改名에 대한 再考」, 『역사민속학』 43, 2013a; 김병곤, 「신라 東宮의 역할과 영역: 임해전 및 안압지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20, 2015. 한편 최영성, 앞의 논문, 2014에서는 동궁과 월지궁이 동일한 실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동궁이 태자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이 주장의 문제는 동궁의 성격에서 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19) 『三國史記』 卷45, 列傳5 緣眞傳, “十四年, 國王無嗣子, 以母弟秀宗爲儲貳, 入月池宮. 時忠恭角干爲上大等, 坐政事堂, 注擬內外官. 退公感疾, 召國醫診脈曰, 病在心臟, 須服龍齒湯. 遂告暇三七日, 杜門不見賓客. 於是, 祿眞造而請見, ……又何必區區於服餌之間, 徒自費日廢事爲哉. 角干於是謝遣醫官, 命駕朝王室. 王曰, 謂卿剋日服藥, 何以來朝. 答曰, 臣聞祿眞之言, 同於藥石. 豈止飲龍齒湯而已哉. 因爲王一一陳之. 王曰, 寡人爲君, 卿爲相, 而有人直言如此, 何喜如焉. 不可使儲君不知, 宜往月池宮. 儲君聞之, 入賀曰, 嘗聞君明則臣直, 此亦國家之美事也.”

20)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122쪽; 木村誠, 「新羅의宰相制度」, 『人文學報』 118, 1977, 36쪽; 崔在錫, 『韓國古代社會史研究』, 一志社, 1987, 182쪽; 金昌謙, 「新羅時代 太子制度의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13, 1993, 166쪽; 이승현, 「新羅의 東宮制度」, 『韓國古代史研究』 55, 2009, 232쪽; 윤경진, 「신라 흥덕왕대 체제정비와 김유신 추봉: 삼한일통의식 출현의 일배경」, 『史林』 52, 2015, 113쪽; 손호호, 「9세기 전반 신라의 정치동향과 충공의 역할」, 『韓國古代史研究』 83, 2016, 309~313쪽.

21) 井上秀雄, 『新羅史의基礎研究』, 東出版, 1974, 433쪽; 曹凡煥, 「新羅 下代 憲德王의 副君 설치와 그 정치적 의미」, 『震檀學報』 110, 2010, 35~36쪽; 김병곤, 「신라 헌덕왕대의 副君 秀宗의 정체성과 太子」, 『東國史學』 55, 2013b, 185~192쪽; 신석열, 「신라 헌덕왕대의 정치과정과 정교부인의 혼인 문제」, 『新羅文化』 48, 2016, 176쪽.

이다. 신라에서 부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사례가 달리 없기 때문에 부군을 태자와 별개의 지위 혹은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부군이라는 별도의 신분 내지는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부군이라는 용어는 『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이하 「보질도태자전기」)에도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태자’ 호칭과 함께 기재되어 있어 더욱 주목된다. 이 부군이 신라에서 사용된 호칭이 맞다면, 부군이라는 별도의 지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군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기사를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 淨神太子 寶叱徒는 아우 孝明太子와 함께 河西府 世獻 角干의 집에 도착하여 하루 밤을 자고 다음날 큰 고개를 넘어 각기 1천 명을 거느리고 雀鳥坪에 도착하여 여러 날을 놀다가 太和 원년(647) 8월 5일 형제가 함께 五臺山으로 숨어 들어갔다. 무리들 가운데 시위자들이 옮겨가며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모두 함께 서울로 돌아갔다.

형 태자는 中臺 남쪽 아래 眞如院터 아래 산 끝에 푸른 연꽃이 핀 곳을 보고 그곳에 풀로 암자를 짓고 살았다. 동생 효명은 北臺 남쪽 산 끝에 푸른 연꽃이 핀 것을 보고 역시 풀로 암자를 짓고 살았다. 형제 두 사람이 예배하고 염불을 수행하고 五臺에 나아가 공경하여 예배하였다.……

정신태자의 아우(淨神太子弟) 副君이 신라에 있으며 왕위를 다투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장군 네 사람을 보내 오대산에 이르러 효명태자 앞에서 만세를 부르니, 이에 오색구름이 있어 오대에서부터 신라에까지 7일 낮 7일 밤 동안 빛이 비치었다. 나라 사람들이 그 빛을 찾아 오대산에 이르러 두 태자를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보질도태자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지 않으므로, 효명태자만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왕위에 올랐다. 재위 20여 년인 神龍 원년(705) 3월 8일 비로소 진여원을 세웠다.²²⁾

이 기사는 오대산 신앙이 신라에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 대한 설화 중 일부이다.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보질도태자전기」 바로 앞에 있는 「臺山五萬眞身」조와²³⁾ 閔漬가 쓴 「五臺山聖跡并新羅淨神太子孝明太子傳記」(이하 「오대산성적기」)에도 실려 있다.²⁴⁾ 이들 세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표현이나 용어 및 사건이 일어난 시간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²⁵⁾ 그 중 하나가 「보질도태자전기」에만 나오는

22) 『三國遺事』卷3, 塔像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條, “新羅淨神太子寶叱徒, 與弟孝明太子, 到河西府世獻角干家一宿, 翌日踰大嶺各領一千人, 到雀鳥坪, 累日遊翫, 太和元年, 八月五日, 兄弟同隱入五臺山. 徒中侍衛等, 推覓不得, 並皆還國. 兄太子見中臺南下, 眞如院址下山床青蓮開, 其地結草菴而居. 弟孝明見北臺南山床青蓮開, 亦結草菴而居. 兄弟二人禮念修行, 五臺進敬禮拜. ……淨神太子弟副君, 在新羅爭位, 誅滅. 國人遣將軍四人到五臺山, 孝明太子前呼萬歲, 即是有五色雲, 自五臺至新羅, 七日七夜浮光. 國人尋光到五臺, 欲陪兩太子還國. 寶叱徒太子, 涕泣不歸, 陪孝明太子, 歸國即位. 在位二十餘年, 神龍元年三月八日, 始開眞如院.”

23) 『三國遺事』卷3, 塔像 臺山五萬眞身條, “藏師之返新羅, 淨神大王太子, 寶川孝明二昆弟, ……淨神王之弟, 與王爭位, 國人廢之. 遣將軍四人, 到山迎之. 先到孝明庵前, 呼萬歲, 時有五色雲七日垂覆. 國人尋雲而畢至排列幽薄, 將邀兩太子而歸. 寶川哭泣以辭, 乃奉孝明歸即位.”

24) 이능화(편), 조선불교통사 역주편찬위원회(역), 『역주 조선불교통사4』,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280~285쪽.

25)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두 기사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두 조에 나누어 함께 실려 있고, 인명 표기와 연대와 세부 사항 등에 적지 않은 차이와 모순이 있다. 이는 두 기사의 전거자료가 서로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기사의 차이에 대한 상

副君이라는 표현이다.

이들 기사의 내용은 『삼국사기』에는 없는 것으로, 이에 주목한 연구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그 중에는 副君이라는 용어에 주목하여, 이 일련의 사건들이 憲德王代에서 興德王 즉위시까지의 일이 과거의 사실로 부회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²⁶⁾ 대체로 기록된 연대와 「대산오만진신」의 주석에서 一然이 추정하 바를 바탕으로 신문왕대에서 성덕왕대에 걸친 일이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으로 효소왕과 성덕왕의 모친에 대한 파악, 신문왕의 아들들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왕위계승 분쟁 등에 대한 연구들이 행해졌다.²⁷⁾

다만 그 내용이 각 기사들에 미묘하게 다르게 실려 있어서, 사료로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기도 했다. 즉 오대산을 불교적으로 신비화 시키는 위한 설화적 이야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해 신라 당대의 역사를 밝히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 일찍이 제기되었던 것이다.²⁸⁾ 그러나 근래에 여러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기사들은 신라 당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연구들이 제출되었고,²⁹⁾ 이 자료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그것을 바탕으로 효소왕~성덕왕대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려 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³⁰⁾ 이 기사들의 내용이 신라 당대의 전승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이 기사들을 통해 신문왕 사후 성덕왕의 즉위에 이르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추출해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오대산 사적 기사를 활용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기사들의 원전이 이미 신라 하대에 성립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8~9세기에 성립한 것으로 보여 효소왕~신문왕대의 사실을 제대로 전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³¹⁾ 또 이 기사들이 고려시대에 정리된 만큼 사용된 용어들이 신라 당대의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³²⁾

본고에서는 기사 내용에 대한 자세한 논증 보다는 副君이라는 용어에 집중하려고 한다. 우선 세 기사에 나오는 부군과 관련한 인물들의 이름과 신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세한 내용은 최연식, 「『삼국유사』 소재 오대산 관련 항목들의 서술 양상 비교」, 『서강인문논총』 44, 2015에 잘 정리되어 있다.

- 26) 金福順, 「新羅 下代 華嚴의 1例: 五臺山事蹟을 中心으로」, 『史叢』 33, 1988, 14~15쪽.
- 27) 金英美, 「統一新羅時代 阿彌陀信仰의 歷史的 性格」, 『韓國史研究』 50·51, 1985, 67쪽; 辛鍾遠, 「新羅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 『崔永禧先生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탐구당, 1987, 130쪽; 박미선, 「新羅 五臺山信仰의 成立時期」, 『韓國思想史學』 28, 2007, 153쪽.
- 28) 李基白,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96, 249쪽. 특히 「오대산성적기」에는 정신왕(태자)의 아우가 왕위를 다투는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사건의 실제성에 의문이 있다.
- 29) 葉中섭, 「『三國遺事』 五臺山 관련 기록의 내용분석과 의미 I: 慈藏의 文殊信仰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01, 2011; 박광연, 「한국 오대산신앙 관련 자료의 재검토: 『삼국유사』 기록의 비판적 해석」, 『사학연구』 118, 2015.
- 30) 서정목, 「『삼국유사』의 「淨神王」·「淨神太子」에 대한 재해석: 『삼국유사』 권3, 탑상4 「대산 오만 진신」과 「명주 오대산 보길도 태자 전기」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19, 2015; 曹凡煥, 「신라 중대 聖德王의 왕위 계승 再考: 三國遺事의 五臺山事蹟을 中心으로」, 『서강인문논총』 43, 2015.
- 31) 박광연, 앞의 논문, 2015, 218쪽.
- 32) 『삼국사기』에 의하면 성덕왕은 신문왕의 둘째 아들로 효소왕의 同母弟라 하였다. 『삼국유사』 왕력에도 효소왕의 母弟라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형인 보길도도의 존재가 의문이다. 물론 『삼국사기』에 관련 기록이 누락된 것일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성덕왕에 대한 것이라 단정하기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으며, 또 후술하겠지만 후대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있는 그대로 사실로 믿기 힘들기 때문에, 이 오대산 관련 기사들을 사료로 활용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 오대산 관련 기사들의 왕자와 부군 정리

	대산오만진신	보길도태자전기	오대산성적기	비고
오대산에 입산한 왕자 2인	淨神大王太子 寶川 兄太子	淨神太子寶叱徒 兄太子	新羅王子淨神太子 寶叱徒淨神太子兒名也	태자는 왕위계승권자를 지칭하지 않음
	孝明 弟太子	孝明太子	孝明太子	
副君 관련 사건 기술	淨神王之弟與王爭位 國人廢之	淨神太子弟副君 在新羅爭位誅滅	新羅王薨而無子	오대산성적기에는 부군과 관련한 사건이 없음

이 기사들에서 부군과 관련하여 淨神, 寶叱徒(寶川), 孝明이라는 세 이름이 나온다. 「대산오만진신」에 달린 주석에서 一然은 淨神大王을 神文王에 비정하여 보천(보길도)과 효명을 신문왕의 두 아들로, 그리고 그중 효명태자를 孝昭王으로 파악했으며, 이야기가 성덕왕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³³⁾ 「보길도태자전기」에는 두 명의 형제 태자가 나오는 것은 동일하나, ‘정신대왕태자’가 ‘정신태자’로만 나와, 보길도(보천)가 곧 정신태자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다. 「오대산성적기」에서는 좀 더 분명히 보길도가 정신태자의 아명이라고 적시하였고, 일연의 주석과 달리 효명태자를 성덕왕으로 보았다. 그런데 세 기사 모두에서 두 명의 왕자를 太子로 적고 있다.

兄太子, 弟太子와 같은 용례를 볼 때, 이 기사들의 太子는 한 명만 존재하는 왕위계승권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려 초 태조의 여러 아들들을 태자라 칭했던 것과 유사하여, 태자라는 명칭이 일반 왕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³⁴⁾ 물론 고려 초 역시 태자가 왕위계승권자의 칭호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것인 만큼, 일정한 의도, 곧 태조의 여러 부인들이 자신의 아들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마다 태자 칭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서,³⁵⁾ 고려 초에 태자가 일반 왕자를 칭하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삼국유사』에서도 실제로 효명태자가 왕위에 올랐고 그 형 보길도도 왕위에 오를 수 있었기에, 이들을 태자라 적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 초를 제외하고는 여러 명의 왕자를 모두 태자로 적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신라 당대에 이 보길도와 효명이 즉위하기 전 실제로 태자 호칭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즉 『삼국유사』 오대산사적기들에 보이는 태자는 신라 중대에 사용되었던 용어가 아니라, 고려 초와 같은 후대의 표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副君은 신라 왕위를 둘러싼 다툼에서 등장하는데, 당시 신라왕과 왕위를 두고 분쟁을 벌인 인물에 대해서

33) 『三國遺事』卷3, 塔像4 臺山五萬眞身條 細注, “按國史, 新羅無淨神寶川孝明三父子明文. 然此記下文云, 神龍元年開土立寺, 則神龍乃聖德王即位四年乙巳也. 王名興光, 本名隆基, 神文之第二子也. 聖德之兄孝昭名理基, 一作洪, 亦神文之子. 神文政明字日照, 則淨神恐政明神文之訛也. 孝明乃孝昭一作昭之訛也. 記云, 孝明即位, 而神龍年開土立寺云者, 亦不細詳言之, 神龍年立寺者, 乃聖德王也.”

34) 金昌謙, 앞의 논문, 1993, 173쪽. 고려 초의 태자 칭호는 태조의 아들에게만 붙은 호칭이 아니며, 孝德太子, 敬章太子, 孝當太子 등과 같이 왕자의 아들, 곧 왕손들에게도 사용되었다.

35) 김기덕, 『高麗時代 封爵制 研究』, 청년사, 1998, 33~34쪽.

「대산오만진신」에는 ‘정신왕의 아우(淨神王之弟)’로 적혀있고, 「보길도태자전기」의 경우 ‘정신태자의 아우 부군(淨神太子弟副君)’이라 기재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오대산성적기」에서는 정신태자가 보길도라고 하였지만, 이 경우 「대산오만진신」조의 ‘정신(대)왕’이 불분명해진다. 따라서 「대산오만진신」의 ‘정신왕의 아우’에서 ‘정신왕’은 ‘淨神王太子’나 ‘淨神太子’의 잘못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여겨진다.³⁶⁾ 그렇다면 두 기사의 부군 혹은 정신왕의 아우(淨神王之弟)는 모두 보길도와 효명 두 태자와 형제 관계가 된다. 그런데 다른 두 태자와 달리 ‘副君’이라는 호칭으로 적고 있다. 일반적인 태자(왕자)와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이 부군을 신문왕 7년(687) 2월에 태어난 元子로 보고, 그가 효소왕대에 부군으로 추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가 있다.³⁷⁾ 이것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확정은 보다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하겠지만,³⁸⁾ 일단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부군은 왕의 아들과 구분되는 왕의 동생일 가능성을 상정할 수도 있겠다. 즉 보길도와 효명의 경우 전왕, 곧 신문왕과의 관계에 입각해 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현왕과 왕위를 다툰 부군은 현왕의 동생이기에, 왕의 아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 태자나 왕자라는 호칭 대신 부군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군은 訥祗麻立干 이후부터 중고기까지 왕의 동생이 주로 임명되는 葛文王을 연상하게 한다.³⁹⁾

그러나 부군을 갈문왕이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태종무열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 흥덕왕의 동생 충공을 제외하고 갈문왕의 존재를 일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⁰⁾ 정확한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 기사들에 나오는 일이 있었던 것이 신문왕대 이후라는 것은 분명한 만큼, 당시에 왕의 동생을 갈문왕 혹은 부군이라고 불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부군이라는 지위 내지는 호칭을 가졌던 것은, 정신태자의 아우가 다른 형제들과 다른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가 왕과 왕위를 다투었다는 기록을 염두에 둔다면, 다른 왕자와 구분되는 신분이나 지위는 왕위계승권과 관련될 것일 수밖에 없다.⁴¹⁾ 이 일이 효소왕~성덕왕대의 일이 분명하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 성덕왕이 효소왕 사후 아들이 없어 나라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삼국사기』 성덕왕 즉위조의 기사를 볼 때,⁴²⁾ 효소왕은 왕위를 이을 태자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부군이 가장 유력한 왕위계승자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길도태자전기」 부군이 왕위계승권자라고 한다면, 태자와 구분되는 실체였을 지를 검토해 볼 필

36) 서정목, 앞의 논문, 2015, 347~348쪽.

37) 서정목, 앞의 논문, 2015, 349~350쪽; 曹凡煥, 앞의 논문, 2015, 101~104쪽.

38) 오대산 사적과 관련한 기사들을 바탕으로 신문왕의 아들들의 모친과 나이 및 왕위계승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개진되어 왔다(曹凡煥, 앞의 논문, 2015, 94~98쪽 참조). 이 기사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이 글의 주된 주제에서 다소 벗어난 것이어서 추후의 과제로 돌리고, 본고에서는 부군이라는 용어가 신라 당대에 사용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겠다.

39) 李基白, 앞의 책, 1974, 22쪽.

40) 위의 책, 1974, 23쪽.

41) 보길도와 효명은 오대산에 숨어들었기 때문에 부군이 誅滅될 당시 왕위계승권에서 멀어진 상태였을 것이다.

42)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聖德王 卽位條, “聖德王立. ……神文王第二子, 孝昭同母弟也. 孝昭王薨無子, 國人立之.” 「오대산 성적기」에도 부군이 존재하지 않고 신라왕의 후손이 없어 효명태자가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新羅王薨而無子, 國人欲迎兩王子.”).

요가 있다. 흥덕왕과 정신태자의 아우 모두 현왕의 형제로서 왕위계승권자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신라에서 부군이 왕의 동생과 같이, 아들이 아닌 왕위계승권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특별히 만들어 사용했던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碑文」에 나오는 다음 사례이다.

興德大王께서 왕위를 계승하시고 宣康太子께서 감무를 하시게 됨에 이르러, 사악한 것을 제거하여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선을 즐겨하여 왕가의 생활을 기쁘게 하였다.⁴³⁾

이 비문의 宣康太子는 흥덕왕의 동생 忠恭이다. 그는 흥덕왕이 副君이 되자 上大等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비문에 의하면 흥덕왕 재위시의 어느 시점에 태자, 곧 왕위계승권자로 책봉되었다. 이 비문의 태자라는 표현에 대하여 실제 그가 태자로 책봉되지는 않았고 아들 閔哀王이 즉위한 후 宣康大王으로 책봉된 것을 염두에 두고 후대에 붙인 것으로 보거나,⁴⁴⁾ 비문의 찬자 최치원이 사실과 관계없이 서술상 표현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⁴⁵⁾ 신라 하대에 왕위계승권자를 현왕과의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태자로 불렀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태자 호칭의 사용례는 『삼국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孝成王은 739년 5월 동생 景德王을 태제가 아니라 태자로 책봉했고,⁴⁶⁾ 元聖王은 손자 昭聖王을 태손이 아니라 태자로 삼았다.⁴⁷⁾ 이러한 사례들은 왕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태자란 호칭이 왕위계승권자의 지위 및 호칭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부군이 아들 이외의 왕위계승권자에게만 부여되었던 특별한 용어라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결국 「보길도태자전기」의 부군은 왕위계승권자를 의미한다고 결론 내려도 좋을 것 같다. 남은 문제는 이것이 신라 당대에 사용된 용어인가 하는 것인데, 이 기사들의 태자와 부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양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 초와 비슷하여, 신라에서 사용했던 것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려 초 태조의 여러 아들들이 태자 칭호를 사용하던 때에, 실제 왕위계승권자였던 惠宗은 正胤으로 책봉된다.⁴⁸⁾ 정윤이 태자의 이칭 중 하나이지만 태자가 왕위계승권자의 독점적 위호로 사용되지 못하던 당시 상황에서 이칭 중 하나인 정윤을 공식적인 호칭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⁹⁾ 즉 정윤은 단순히 태자의 이칭이 아니라, 여러 태자와 구분되는 왕위계승권자의 정식 지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보길도태자전기」의 부군도, 고려 혜종의 사례와 같이, 다른 왕자들이 태자를 관칭하고 있기 때문에, 왕위

43) 韓國古代社會研究所(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180~181쪽, “及興德大王纂戎, 宣康太子監撫, 去邪翳國, 樂善肥家.”

44) 신정훈,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한국학술정보, 2010, 262쪽.

45) 손흥호, 앞의 논문, 2016, 326쪽.

46)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孝成王 3年 5月條, “封波珍浪憲英爲太子.”

47)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元聖王 11年 正月條, “封惠忠太子之子俊巒爲太子.”

48) 『高麗史』卷1, 世家1 太祖 4年 12月 辛酉條, “冊子武爲正胤.[正胤卽太子.]”

49) 김기덕, 앞의 책, 1998, 37~38쪽. 광종대 이후로 왕위계승권자의 책봉호가 ‘(왕)태자’로 바뀌고 정윤 칭호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계승권자를 구분해 주기 위해 부군이라는 태자의 이칭을 쓴 것이라 한다면, 신라에서는 일반 왕자를 태자로 칭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군이라는 지위나 호칭 역시 고려 초의 상황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혜종의 사례를 볼 때 알 수 있듯이 고려 초에는 정윤이 사용되었고, 부군이라는 용어는 사용된 사례를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⁵⁰⁾ 반드시 고려 초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용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여전히 신라시대에 사용되었던 용어일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남아있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면, 「보길도태자전기」의 부군은 고려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일반 왕자와는 구분되는 왕위계승권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 부군이 왕위계승권자로서의 태자와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지위와 신분이라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설사 이 부군이 신라 당대에 사용되었던 용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흥덕왕이 된 부군이 태자와는 다른 정치적 지위 혹은 신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Ⅲ. 헌덕왕대 부왕과 부군

그렇다면 흥덕왕이 헌덕왕 14년(822)에 된 부군은 정확히 태자이거나 혹은 단순한 태자의 이칭이라고 보아도 좋을까.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흥덕왕의 사례이외에 ‘부군’호가 사용된 예가 전무하다는 문제가 있다. 앞 장의 검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도 부군이라는 호칭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흥덕왕의 부군 책봉에만 등장하는 용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제한된 시기에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아마 흥덕왕이 부군이 되는 시점 전후의 어떠한 특수한 사정 때문에 태자와 다른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⁵¹⁾ 이와 관련하여 당에서 신라에 보낸 다음 勅書에 ‘부군’은 아니지만 유사한 호칭이 나와 주목된다.

「與新羅王金重熙等書」 신라왕 金重熙에게 勅함. 金獻章과 승려 沖虛 등이 도착하여……지금 김현장 등을 돌려보내며 약간의 信物을 別錄과 같이 갖추어 보내 경의 모친과 妃 아울러 副王, 宰相 이하에게 각각 물품을 하사하니 도착하면 마땅히 수령하라.⁵²⁾

이는 헌덕왕이 즉위한 다음 해(810) 10월에 왕자 金憲章(金獻章)을 사신으로 보내 조공하면서 금은불상과

50) 고려 후기 이승휴가 부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는 있다(『帝王韻紀』 卷下, 「本朝君王世系年代」의 세주에 ‘副君’이라는 용어가 나온다(“且唐之史臣, 豈以副君潛遊外國之事, 筆之於矯書之文耶.”). 이를 보면 고려 후기에 부군을 태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사례는 혜종이 책봉된 정윤처럼 고려만의 특징적인 용례는 아니며, 당 황제가 즉위하기 전의 신분을 부군으로 적은 것이어서, 단순히 태자의 이칭으로 사용된 듯하다.

51) 朱甫噉,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51, 2008, 241쪽.

52) 『文苑英華』 卷471, 蕃書4 新羅書, “與新羅王金重熙等書. 勅新羅王金重熙. 金獻章及僧沖虛等至, ……今遣金獻章等歸國, 并有少信物, 具在別錄, 卿母及妃并副王宰相已下, 各有賜物, 至宜領之.”

불경 등을 바치고 5년 전에 사망한 당 順宗의 명복을 빈 것에 대한 답으로 온 것으로,⁵³⁾ 애장왕이 시해되고 헌덕왕이 즉위한 상황이지만, 신라왕을 애장왕으로 인식하고 보내온 칙서이다. 아마 당에 애장왕이 죽고 헌덕왕이 즉위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에 답례품의 수령자로 왕모와 비 다음으로 부왕이 적시되어 있다. 이 부왕은 신라에서 사용되었다고 알려지지 않은 지위 혹은 호칭이다. 부왕은 부군과 글자 의미를 본다면 사실상 동일한 용어가 아닌가 한다.⁵⁴⁾

이 칙서에서 부왕의 순서가 왕비 다음 재상 위인 것을 고려한다면, 신라에서 최고위의 인물, 즉 당시 헌덕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⁵⁾ 그리고 이 부왕이라는 지위 혹은 칭호는 신라에서 당에게 알려진 정보로 여겨진다. 다른 나라에 보낸 칙서들에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가진 것을 보면 물품을 하사하는 사람들의 지위가 국가별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해의 경우 신라와 같이 ‘부왕’이 등장하지만, 그 밑이 長史, 平章事로 신라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⁵⁶⁾ 回鶻의 경우 內外宰相 및 判官, 摩尼師 등으로 적고 있다.⁵⁷⁾ 거란에 보낸 칙서에는 妃, 男等, 兵馬使, 屯刺史, 梅落達磨, 縣令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고 있다.⁵⁸⁾ 주변국에서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방물을 바친 후 사신이 귀국할 때 당에서 회사품을 보내는데, 이때 주변국의 신청에 의해 회사품을 받을 대상을 칙서에 적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왕은 특등인이 가지고 있던 신라의 지위라 할 수 있으니, 당시 헌덕왕이 당에 알린 자신의 지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왜 군이 부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단서는 다음 『舊唐書』新羅傳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元和) 3년(808) 使臣 金力奇를 보내어 조공하였다. 같은 해 7월에 力奇가 말을 올리기를 “貞元 16년(800)에 臣의 故主 金俊邕를 新羅王으로 삼고, 어머니 申氏로 太妃를 삼으며, 아내 叔氏로 王妃를 삼는다는 詔冊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冊使 韋丹이 中道에서 俊邕의 죽음을 알고 그 冊命을 도로 가지고 돌아가서 中書省에 두었습니다. 이번에 臣이 본국으로 돌아가므로 臣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시기를 엿드려 청합니다.” 하였다. 이에 칙서를 내리기를 “金俊邕 등의 冊命은 마땅히 鴻臚寺로 하여금

53)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2年 10月條, “遣王子金憲章入唐, 獻金銀佛像及佛經等, 上言爲順宗祈福.”

54) 이문기는 원래 흥덕왕이 된 부군이 헌덕왕대 부왕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지만(이문기, 「여신라왕김중희서」로 본 헌덕왕의 즉위 사정, 『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총2』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2014, 434쪽 각주 6), 후에 원고를 개정하면서 부군과 이 부왕을 동일한 것을 볼 수 없다고 보았다(이문기,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15, 87쪽의 각주 6). 그러나 君과 王이 서로 통용되는 글자인 만큼 이 둘을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손흥호는 이 부왕을 애장왕의 어린 왕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손흥호, 앞의 논문, 2016, 310쪽 각주 24). 하지만 이 부왕은 헌덕왕이 당에 회사품 수여자로 알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애장왕의 어린 아들이라 생각하기는 힘들다. 또 선석열은 부왕을, 당이 당시 攝政이었던 헌덕왕에게 부여했던 호칭 내지는 지위로 파악하였다(선석열, 앞의 논문, 2016, 176쪽).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부왕은 신라측의 호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5) 이문기, 앞의 책, 2015, 87쪽.

56) 『文苑英華』卷471, 蕃書4 渤海書, “與渤海王大彝震書. 封敖. 勅渤海王大彝震. 王子大昌輝等, 自省表陳賀, ……今因王子大昌輝等廻國, 賜卿官告及信物, 至宜領之. 妃及副王長史平章事等各有賜物, 具如別錄.”

57) 『全唐文』卷665, 白居易10, “皇帝敬問回鶻可汗. ……今賜少物, 具如別錄, 內外宰相及判官摩尼師等, 並各有賜物, 至宜准數分付.”

58) 『文苑英華』卷471, 蕃書4 契丹書, “與契丹王鶻戍書二首. 封敖. 勅契丹王鶻戍. 大首領未荷得等至, ……今賜卿少物, 至宜領之. 妃以下及男等并兵馬使屯刺史梅落達磨縣令等, 各有賜物, 具如別錄.”

中書省에서 수령해 오게 하여야 되니, (鴻臚)寺에 알려져 金力奇에게 주어 받들고 돌아가게 하라. 이어서 (현 애장왕의) 숙부 彥昇에게 門戟을 하사하니 돌아가서 본국의 예에 따라 나누어 주라.” 하였다.

(元和) 4년(809) 使臣 金陸珍 등을 보내와 朝貢하였다.

(元和) 5년(810) 왕자 金獻章이 와서 朝貢하였다.

(元和) 7년(812) 重興이 죽어서 그 宰相 金彥昇을 세워 왕으로 삼고 사신 金昌南 등을 보내와 告哀하였다. 그해 7월에 人승을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兼持節充寧海軍使 上柱國 新羅國王에 제수하고 彥昇의 아내 貞氏를 王妃로 책봉하였다.⁵⁹⁾

애장왕 8년(808)에 金力奇가 당에 사신으로 가 전달받지 못한 소성왕에 대한 책문을 줄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재상 김인승, 곧 헌덕왕 등에 대한 문극을 요청하여 받고 있다. 헌덕왕은 이미 원성왕 6년(790)에 당에 사신으로 갔다 온 경력도 있었기에,⁶⁰⁾ 재상이자 왕의 숙부라는 정보는 이전부터 알려졌을 것이다. 한편 그는 왕위에 오르자 4년이 지난 812년에 이르러서야 애장왕의 사망과 자신이 왕위에 올랐음을 알리고 책봉을 받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헌덕왕의 책봉이 헌덕왕 즉위년(809)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는데,⁶¹⁾ 이는 『삼국사기』의 오류이다.⁶²⁾

앞의 부왕이 등장하는 칙서는 두 일 사이, 곧 810년 김헌장을 파견하여 조공한 때에 있었던 일이다. 즉 이미 죽은 애장왕에게 내려진 칙서를 받을 당시 헌덕왕은 이미 왕위에 있었지만, 그 사실을 당에 알리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며, 4년이 지난 후에 즉위 사실을 당에 알리고 책봉을 받고 있다. 이는 헌덕왕이 즉위 초기에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⁶³⁾ 전왕의 시해라는 방법을 통해 즉위한 사실을 어느 정도 감추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것이다.⁶⁴⁾ 즉 정변으로 전왕을 시해한 자신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기에, 바로 즉위 사실을 알리고 책봉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 추정된다.

아마 809년 김육진이 사신으로 파견되어 당에 조공한 일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한다. 김육진은 전해 김역기가 소성왕의 책봉 조책과 물품을 가져온 것에 대한 답례로 애장왕이 파견하였다.⁶⁵⁾ 그리고 그 직후 헌덕

59) 『舊唐書』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新羅國傳, “三年, 遣使金力奇來朝. 其年七月, 力奇上言, 貞元十六年, 奉詔册臣故主金俊邕爲新羅王, 母申氏爲太妃, 妻叔氏爲王妃. 册却迴在中書省. 今臣還國, 伏請授臣以歸. 敕, 金俊邕等册, 宜令鴻臚寺於中書省受領, 至寺宣授與金力奇, 令奉歸國. 仍賜其叔彥昇門戟, 令本國準例給. 四年, 遣使金陸珍等來朝貢. 五年, 王子金憲章來朝貢. 七年, 重興卒, 立其相金彥昇爲王, 遣使金昌南等來告哀. 其年七月, 授彥昇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兼持節充寧海軍使上柱國新羅國王, 彥昇妻貞氏册爲妃, 仍賜其宰相金崇斌等三人戟, 亦令本國準例給.”

60)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憲德王 卽位條, “元聖王六年, 奉使大唐受位大阿浪.”

61)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憲德王 元年 8月條, “遣伊浪金昌南等入唐告哀. 憲宗遣職方員外郎攝御史中丞崔廷, 以其質子金士信副之, 持節弔祭, 册立王爲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兼持節充寧海軍使上柱國新羅王, 册妻貞氏爲妃. 賜大宰相金崇斌等三人門戟.”

62)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 遣唐使研究』, 一潮閣, 1997, 75~77쪽. 이 오류가 『삼국사기』 편자의 의도적 수정일 수도 있지만 (末松保和, 『新羅史의諸問題』, 東洋文庫, 1954, 417쪽), 이미 신라 당대에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이문기, 앞의 책, 2015, 90~95쪽).

63) 헌덕왕이 즉위한 후 3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平議殿에 나가 정사를 처리하였다거나(『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3年 4月條), 5년에 비로소 始祖廟를 찾았다는 기록(위의 책, 憲德王 5年 2月條) 등은 헌덕왕이 즉위한 후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정치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걸렸음을 보여준다(최홍조, 『新羅 哀莊王代의 政治變動과 金彥昇』, 『韓國古代史研究』 34, 2004, 366쪽).

64) 최홍조, 「신라 神行禪師碑의 건립과 그 정치적 배경」, 『木簡과 文字』 11, 2013, 239쪽; 이문기, 앞의 책, 2015, 83쪽.

왕이 동생 梯巒과 함께 정변을 일으켜 애장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하였다.⁶⁶⁾ 이때 김육진은 아직 당에서 귀환하지 않았을 때로, 그가 애장왕이 별로 없이 잘 있다고 당에 전달했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⁶⁷⁾

헌덕왕은 즉위한 다음 해(810)년 김현장을 사신으로 파견한 것은 명분상으로는 불교 관련 물품을 바치면서 당 順宗의 명복을 비는 것이지만, 순종은 이미 5년 전에 죽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헌덕왕의 왕위 찬탈 사실을 당 조정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헌덕왕의 왕위 찬탈을 통한 즉위를 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탐색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⁶⁸⁾

그러나 단순한 정보 수집의 목적만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자신의 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신이 애장왕이 죽을 경우 왕위계승권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공식화시키기 위해 부왕이라는 지위를 새로이 만들었고, 당에 자신이 바로 부왕임을 알리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부왕은 발해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왕의 장남, 곧 왕위계승자인 태자에 해당하는 지위였다.⁶⁹⁾ 헌덕왕이 이 발해의 부왕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당시 자신의 왕위계승권을 공식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지위 호칭으로 발해의 부왕과 유사한 의미를 가졌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⁷⁰⁾

원래 신라에서 왕위계승권자의 공식적인 지위이자 호칭은 태자였지만, 왕의 숙부로 잘 알려져 있던 헌덕왕의 경우 태자를 칭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그는 부왕이라는 지위를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전술했던 것과 같이 헌덕왕은 790년에 당에 사신으로 갔으므로, 이미 그의 신분과 지위는 당에 알려져 있었다. 애장왕 9년(808)에 김역기가 사신으로 가 그와 아우 충공 등의 문극을 하사받았는데, 그를 新羅王叔, 宰相으로 기록한 것이 확인된다.⁷¹⁾ 따라서 그가 통상적인 태자의 지위를 자칭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고, 이에 왕위계승권을 가진 별도의 位號로 부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헌덕왕은 이 부왕 칭호를 통해 왕위계승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에 인지시킨 후, 812년 당에 책봉을 요청하여 받고 있는데, 이때에 애장왕이 병으로 죽었다고 당에 알린 것으로 보인다.⁷²⁾ 그리고 앞의 『구당서』 기사와 같이 국내에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즉위했다고 하면서 전왕을 승습하는 책봉을 요청했다고 여겨진다. 결국 810년의 「與新羅王金重熙等書」에 나오는 부왕은 헌덕왕대에 외교에 활용할 목적으로 새롭게 만든 지위 및 호칭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어 822년에 자신의 동생 興德王도 부군으로 책봉

65)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哀莊王 10年 7月條, “遣大阿湌金陸珍入唐, 謝恩兼進奉方物.”

66)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哀莊王 10年 7月條, “王叔父彥昇與弟伊滄梯巒, 將兵入內, 作亂弑王. 王弟休明侍衛王, 并并害之. 追諡王爲哀莊.”

67) 김육진이 그 이후 행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헌덕왕측의 인물이 아니라고 보이며(최홍조, 앞의 논문, 2004, 363쪽), 애장왕이 파견한 인물이므로 헌덕왕의 정변 이전의 상황을 당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68) 이문기, 앞의 책, 2015, 84~85쪽.

69) 『新唐書』 卷219, 列傳144 北狄 渤海傳, “俗謂王曰可毒夫, 曰聖王, 曰基下, 其命爲教. 王之父曰老王, 母太妃, 妻貴妃, 長子曰副王, 諸子曰王子.”

70) 당이 신라와 발해에 보낸 두 칙서에 부왕이 나오는데, 그 나열 순서를 볼 때 모두 妃 바로 다음이며 관원들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앞의 각주 52와 56). 이를 볼 때 신라의 부왕 역시 발해 부왕과 비슷한 위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71) 『冊府元龜』 卷976, 外臣部 褒異3, “憲宗元和……三年……十月己酉敕, 新羅王叔金彥昇弟仲恭等三人, 宜令本國准舊例賜戟.”; 『新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新羅傳, “又爲其宰相金彥昇金仲恭, 王之弟蘇金添明, 巧門戟, 詔皆可.”

72) 『三國史節要』 卷13, 己丑 哀莊王 10年條, “遣伊滄金昌南等, 告哀于唐, 辭以病薨, 且請承襲.”

하여 왕위계승권자로 지정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부군 혹은 부왕은 헌덕왕이 자신이 즉위한 것의 정당성을 당에 설명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그 실체는 사실상 태자였다고 보인다. 그렇기에 이 부군(부왕)이라는 지위와 호칭은 지속되지 못한 것 같다. 앞서 언급한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文』에 ‘선강태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흥덕왕의 재위시 동생 충공이 태자로 책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충공이 실질적으로 태자의 역할을 했고, 왕위계승권자로 인정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⁷³⁾ 헌덕왕 말년에 그가 실제로 태자가 되었다면 왕위계승권자의 호칭이 다시 태자로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⁷⁴⁾ 그렇지 않다고 해도 839년 神武王이 즉위한 직후 아들 慶膺, 곧 文聖王을 태자로 책립하고 있어서,⁷⁵⁾ 태자가 왕위계승권자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다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부군은 흥덕왕까지만 사용된 용어라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舊唐書』 등 중국 사서에 나오는 흥덕왕 책봉 기사가 주목된다.

(大和) 5년(831) 金彥昇이 卒하니 그의 아들(嗣子) 金景徽를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使持節大都督 雞林州諸軍事 兼持節充寧海軍使 新羅王으로 삼았다.⁷⁶⁾

『新唐書』와 『冊府元龜』 등 모든 중국 문헌들의 책봉기사에 흥덕왕은 헌덕왕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오류는 아마 신라에서 넘어간 정보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흥덕왕의 공식 호칭이 태자였고, 흥덕왕과 헌덕왕의 관계를 잘 몰랐던 당이 그 호칭에 입각하여 둘을 부자관계로 파악한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전왕의 아들이 아니었던 태자들에 대한 기록들은 모두 제대로 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⁷⁷⁾ 흥덕왕 책봉의 경우 정확히 알 수 없는, 무언가 이전과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⁷⁸⁾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흥덕왕의 경우 부군으로 책봉되었지만, 당에는 아마 태자로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왕의 아들로 기재되는 오류가 나타났던 것으로 추측되며, 당에 알려진 흥덕왕의 공식적인 지위나 호칭이 태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⁷⁹⁾ 흥덕왕은 헌덕왕과 달리 처음부터 자신을 정당한 왕위계승자로 인정받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부군이라는 칭호를 굳이 계속 사용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흥덕왕을 마지막으로 부군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73) 손흥호, 앞의 논문, 2016, 326쪽.

74) 충공이 흥덕왕 즉위 초에 태자에 책봉되었다고 보기도 하나(金昌謙, 앞의 논문, 1993, 168쪽), 충공이 흥덕왕 10년(835) 2월까지 상대등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李基白, 앞의 책, 1974, 113쪽), 만약 그가 태자가 되었다면 그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75)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神武王 卽位條, “立子慶膺爲太子.”

76)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新羅國傳, “五年, 金彥昇卒, 以嗣子金景徽爲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使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兼持節充寧海軍使新羅王.”

77) 손흥호, 앞의 논문, 2016, 317쪽 참조.

78) 헌덕왕은 즉위 이전부터 王叔, 宰相 등으로 당에 잘 알려져 있었던데 비해, 흥덕왕은 중국 문헌에 즉위 이전까지 등장하지 않아 당에 알려진 인물이 아닌 듯하다. 동생 충공이 헌덕왕과 함께 문극을 받을 때에도 흥덕왕은 제외되어 있다.

79) 흥덕왕릉비편의 ‘己之歲冊’ 문구를 가지고 헌덕왕 17년 乙巳年(825)에 부군에서 공식적으로 태자로 책봉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閔泳珪, 『新羅興德王陵碑斷石記』, 『歷史學報』 17·18, 1962, 627쪽). 부군의 지위와 신분이 태자와 같은 것이므로 그대로 수긍하기는 힘들지만, 흥덕왕이 부군 칭호를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태자로 불리었을 수 있다.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헌덕왕이 자칭했던 것으로 보이는 부왕은 부군과 동일한 것으로, 공식적인 차기 왕위계승권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사실상 태자의 지위에 해당한다. 즉 부군은 새로운 지위나 신분이라기보다, 태자와 동일한 성격에 다른 이름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緣眞傳에서는 태자의 이칭인 儲貳, 儲君라는 호칭으로 바꾸어 사용되는 것과 같이 태자와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헌덕왕과 흥덕왕 정도에서만 사용되었고, 곧 태자로 복원된 것으로 여겨진다.

IV. 맺음말 - 동궁과 월지궁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822년 흥덕왕이 된 부군은 왕위계승권자인 태자와 동일한 지위 내지는 신분이라 분명하다. 따라서 이때 그가 들어간 월지궁은 바로 태자의 거처이자 활동 공간이었던 동궁의 정식 명칭 혹은 이칭이라 할 수 있다. 이 월지궁은 대체로 현재의 사적 18호 ‘신라 동궁과 월지’ 유적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래에 월지궁을 동궁과는 별개로 보며, 월지가 현재의 월성해자 석축에 해당하고 월지궁도 월성해자 인근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⁸⁰⁾ 이는 부군이 태자와 별개의 지위여서 월지궁이 동궁이 아니라는 전제에 입각한 것으로, 부군이 왕위계승권자인 태자와 근본적으로 같은 성격인 것이 분명한 만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여겨진다.⁸¹⁾

이제 결론을 대신하여 동궁과 월지궁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월지궁과 월성, 곧 왕궁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신라 동궁과 월지 유적은 처음에는 월지(안압지)를 중심으로 서편 건물지와 남편 건물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중에서 서편 건물지가 『동국여지승람』의 기사와 맞물려 동궁의 핵심 구역인 임해전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리고 이 임해전은 월지와 거의 동시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⁸²⁾ 즉 처음부터 월성과는 별개의 궁으로 월지와 서편·남편 건물지가 함께 축조되었다고 파악되어왔던 것이다.⁸³⁾

하지만 월지와 동궁은 월성, 곧 왕궁과 별개의 궁으로 계획되어 동시에 함께 건설된 것이 아니다. 이는 우선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먼저 674년 2월 궁 안에 큰 연못, 곧 월지를 만드는 공사를 한다.⁸⁴⁾ 그리고 이어 왕궁의 확장과 정비를 추진한다. 월지 조성 이후 676년 壤宮을 짓고,⁸⁵⁾

80) 김병곤, 앞의 논문, 2013a, 27~28쪽.

81) 또한 최근 월성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석축 해자 근처에서 월지궁이라 부를 만한 건물지군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직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석축 해자를 포함한 월지궁의 존재를 현재로서는 상정하기 힘들다.

82) 李基白, 「望海殿과 臨海殿」, 『考古美術』 129·130, 1976.

83) 특히 서쪽 건물지들이 월지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월지 창건과 관련해서 그 기본 설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였다(高敬姬, 앞의 논문, 1993, 11쪽). 월지와 동궁의 건설 과정에 대한 그간의 인식에 대해서는 양정석, 「新羅 月池와 東宮의 變化過程 檢討: 月池 南便 建物址의 分析을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154, 2011, 3~13쪽 참조.

679년 2월에 궁궐을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게 重修했다.⁸⁶⁾ 신라 최초의 동궁은 월지 조성으로부터 5년이 지난 679년 8월에서야 이루어졌다.

681년 6월에는 왕경에 성을 쌓으려다가 義湘의 건의를 듣고 중지했던 것을 아울러 고려하면,⁸⁷⁾ 문무왕은 삼국통일의 달성에 즈음하여 대대적으로 왕궁과 왕경에 대한 정비를 시행했다고 할 수 있으며, 월지 조성도 그 일환, 곧 왕궁 정비 및 확장일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월지는 처음에는 월성 안에 혹은 그 확장 구역에 건설한 苑池였고, 추후 그 월지를 포함한 구역에 동궁이 건립되면서, 월지와 동궁이 일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동궁과 월지의 관계는, 최근의 월지 동편 유적 발굴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⁸⁸⁾ 현재까지는 동편 유적 중 일부, 곧 (가) 지구 발굴만이 보고되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1호 담장을 기준으로 서편과 동편 구역이 동시에 조영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증축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담장 안에 한정되었던 궁의 영역이 담장 밖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1호 담장의 서편은 처음 월지를 조영할 때 만들어진 월성의 苑圃池 구역이고, 이후 동궁을 이 지역에 건립하면서, 관련 건물들을 추가하면서 1호 담장 밖까지 그 영역이 확장된 것이라 판단된다.⁸⁹⁾

그렇다면 동궁은 건립 당시부터 왕궁인 월성과 별개의 독립된 궁이 아니라, 월성의 확장 영역이자 월성의 한 구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7세기 중후반에 월성해자가 매립되거나 조경 연못으로 전환된 사실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월성이 외부로 확장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어서,⁹⁰⁾ 동궁 구역이 월성과 구별되는 별개의 궁이 아니라 확장 구역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⁹¹⁾

그간 월지궁이나 동궁이 태자궁이 아니라는 지적들은 대부분 월성과 월지궁의 이러한 관계를 간과하였기 때문에 나왔다고 여겨진다. 즉 연회를 베푸는 등의 왕의 활동이 동궁(월지궁)에서 이루어지면서, 이를 태자의 거처궁으로 보기 힘들다는 문제는, 월성과 동궁의 이러한 관계가 분명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월지궁의 구조와 범위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록에 주목할 수 있다.

大博大王은 중국의 풍속으로써 弊風을 일소하고 넓은 지혜로써 마른 세상을 적시게 하셨다. 평소에

84)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4年 2月條, “宮內穿池造山, 種花草, 養珍禽奇獸.”

85) 위의 책, 文武王 16年 7月條, “作壤宮.”

86) 위의 책, 文武王 19年 2月條, “重修宮闕, 頗極壯麗.”

87) 위의 책, 文武王 21年 6月條, “王欲新京城, 問浮屠義相. 對曰, 雖在草野茅屋, 行正道卽福業長, 苟爲不然, 雖勞人作城, 亦無所益. 王乃止役.”

88) 李熙濂, 「동궁과 월지」 동편 신라왕경 유적의 조성 시기 및 성격 검토, 『韓國古代史探究』 11, 2012 및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4 참조.

89) 홍승우, 앞의 논문, 2017, 243~244쪽.

90) 여호규, 「6~8세기 신라 왕궁의 구조와 정무·의례 공간의 분화」, 『역사와 현실』 94, 2014, 63~65쪽.

91) 아울러 신라에 동궁을 건립한 문무왕은 650년 사신으로 간 경험이 있다. 이때 당의 도성과 황궁을 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참고하여 신라 동궁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의 동궁은 황궁과 일체화되어 건립되고 운영되었는데(최재영, 앞의 논문, 2017, 92쪽), 이 역시 신라 동궁이 월성과 연결되어 하나의 궁궐처럼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北魏의 고승) 靈育의 이름을 흠양하시고, (東晉의 승려) 法深의 강론을 간절히 듣고자 했던 터라, 이에 鷄足山에 마음을 기울이시어 鶴頭書를 보내 (대사를) 초청하여 말하기를……(대사가) 옥을 품고 산에서 나왔다. 車馬가 베날 듯이 길에서 맞이하였다. 禪院寺에서 휴식하게 되자, 편안히 이틀 동안을 묵게 하고는 인도하여 月池宮에서 ‘心’을 질문하였다. 그 때는 섬세한 蔦蘿에 바람이 불지 않고 溫樹에 바야흐로 밤이 될 무렵이었는데, 마침 달의 그림자가 맑은 못 가운데 똑바로 비친 것을 보고는, 대사가 고개를 숙여 유심히 살피다가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고 말하기를, “이것[月]이 곧 이것[心]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⁹²⁾

憲康王이 智證大師를 궁으로 불러들여 가르침을 받는데, 그 장소가 月池宮이다. 이때 온실수(溫樹)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온실수는 前漢代 사람 孔光의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왕이 신하들과 함께 정치를 베푸는 공간 혹은 왕의 大殿에 가까운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에 월지궁을 동궁이 아니라 왕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⁹³⁾ 동궁이 월성과 구분되는 별개의 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월지궁에 앉아 있다가 못 가운데 달이 비친 것을 보는 장면이 있다. 즉 월지궁은 못, 곧 월지에 인접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헌강왕이 지증대사를 접대한 월지궁의 건물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먼저 월지궁의 핵심 건물인 임해전터로 추정되는 서편 건물지를 생각할 수 있다.⁹⁴⁾ 『삼국사기』에서 왕이 주관하는 연회장소로 임해전이 주로 사용되었던 까닭이다.⁹⁵⁾

그러나 헌강왕이 지증대사를 맞이하여 ‘心’에 대해 질문한 곳이 이 서편 건물지이기도 하다. 서편 건물지는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곳에 앉아 월지에 비친 달을 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편 건물지 중 석축 호안에 인접한 단독 건물지는 위 서술에 부합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선사를 맞이하는 격조 있는 건물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한다.

월지에 인접한 월지궁의 건물로 지증대사를 접견할 만한 건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동편 유적의 1호 건물지이다.⁹⁶⁾ 1호 건물지는 남북방향으로 길게 배치된 건물지로서 동쪽에 정교하게 치석된 장대석기단이 확인된다. 건물지 동북쪽에는 디딤돌 3매가 남아 있는 계단 시설이 확인되며, 2단으로 된 기단석의 형태 등과 함께 고려할 때 가구식기단을 갖춘 건물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기초부에서 확인된 유물과 상부에서 확인된 유물 간에 일정한 시기차가 확인되어 신라 중대에서 하대까지 꾸준히 유지된 것으로 파악되고

92) 「鳳巖寺 智證大師塔碑」(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앞의 책, 1992, 191~192쪽), “太傅大王, 以華風掃弊, 慧海濡枯. 素欽靈育之名, 渴聽法深之論. 乃注心鷄足, 灑翰鶴頭. 以徵之曰,……懷玉出山. 轡織迎途. 至憩足于禪院寺, 錫女信宿, 引問心于月池宮. 時屬纖蘿不風, 溫樹方夜, 適觀金波之影, 端臨玉沼之心, 大師俯而覲, 仰而告曰, 是即是, 餘無言. 上洗然欣契曰, 金仙花目, 所傳風流, 固協於此. 遂拜爲忘言師. 及出俾蓋臣譬旨, 幸宜小停, 答曰, 謂牛戴牛, 所直無幾. 以鳥養鳥, 爲惠不貲. 請從此辭, 枉之則折. 上聞之喟然, 以韻語歎曰, 施旣不留, 空門鄧侯. 師是支鶴, 吾非超鷄. 乃命十戒弟子宣教省副使馮恕行, 援送歸山.”

93) 최영성, 앞의 논문, 2014

94) 이는 현재까지 발견된 건물지들 중 서편 건물지가 3개의 큰 건물지가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세 건물이 회랑으로 둘러싸인 형태로 이루어져 유교 예제에 부합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高敬姬, 앞의 논문, 1993, 10~11쪽; 전덕재, 앞의 논문, 2017, 37쪽).

95) 앞의 각주 6 참조.

9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4, 54~61쪽.

있다.

1호 건물지의 남쪽 부분은 발굴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전체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면 곧 남북 길이가 16.4m 이상이며, 측면 즉 동서 길이가 13.2m에 이르는 정면 8칸 이상의 대규모 건물로 추정된다. 또 남쪽에 북쪽에 비해 돌출된 기단부가 확인되어 돌출된 건물을 중심으로 양쪽에 대칭되는 보조건물이 배치된 구조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 1호 건물지는 월지의 담장 안쪽에 건립되어 월지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커 연회를 비롯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한 건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서 연회가 베풀어진 공간인 임해전이 이 동편 1호 건물지일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임해전에는 臨海門이 존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⁹⁷⁾ 현재 발굴 상태를 볼 때 임해문에 해당하는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임해전이 월지의 서쪽에 있다는 『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어 임해전으로 보기는 힘들다.⁹⁸⁾

월지에 인접하면서 중요한 행사를 치를 만한 동편 유적 1호 건물지를 고려할 때, 월지궁은 서편 건물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 건물지와 동편 건물지 전체를 포함하는 규모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⁹⁹⁾ 이 경우 월지궁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단순한 태자궁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부군이 들어간 월지궁이 태자궁이 분명한 만큼, 서편 건물지(임해전)와 같은 태자의 거처이자 활동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쪽 구역 역시 월지궁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므로, 월지와 인근 건물지 전체를 동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월지궁이 월성의 확장 개념이 강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월지궁이 전적으로 태자만의 독립적 공간으로 볼 수는 없고 월성과 함께 운영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넓은 영역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현강왕이 지증대사를 월지궁에서 맞이한 것이 임해전이 주로 연회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태자궁으로서의 기능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東宮官 중에 僧房典이 있는 것에 주목한다면,¹⁰⁰⁾ 불교 관련 행사가 월지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태자와 연관 있는 관부들인 동궁관에 龍王典과 같이 종교적인 성격이 강한 관부도 존재하는 것을 아울러 고려하면, 태자의 공적 활동 중 하나에 종교 관련 행사 주관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월성과 주변 유적들에서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우물 유적이 발견되어 월성에서 제의가 행해졌음을 짐작하게 하는데,¹⁰¹⁾ 월지 동편 유적 중 4호 건물지군이, 수로형 저수시설로 추정되는 석축유구와 다량의 유물이 폐기된 우물지가 발견되어, 일반 가옥과는 다른 특수성과 위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97)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昭聖王 2年 4月條, “暴風折木蜚瓦, 瑞蘭殿簾飛不知處, 臨海仁化二門壞.”

98) 또한 이 동편 유적 1호 건물지의 앞에, 아직까지 서쪽이 정면인지 동쪽이 정면인지 불분명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물이 태자(부군)의 공적 활동의 주공간이 되는 건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99) 동궁이 월성의 확장 구역이라고 한다면, 월지와 주변 건물지 모두가 동궁이 아닐 가능성도 있겠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일단 월지 주변이 모두 동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00) 『三國史記』 卷39, 雜志8 職官中, “僧房典. 大舍二人. 從舍知二人.”

101) 이재환, 「한국 고대 「呪術木簡」의 연구 동향과 展望: 「呪術木簡」을 찾아서」, 『木簡과 文字』 10, 2013, 131~133쪽.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¹⁰²⁾

한편 월성 동남편에 있는 인왕동 왕경유적(국립경주박물관 남측 부지 유적)의 15호 건물지의 적심과 적심 사이에서 출토된 ‘辛番東宮洗宅’명 청동접시와 3방 1호 우물지에서 발견된 ‘東宮衙’명 대부호를 근거로,¹⁰³⁾ 이 유적이 동궁이라 추정된 연구도 있다.¹⁰⁴⁾ 이 유적은 7세기 후반대에 축조되기 시작하여 8세기 중반대를 거쳐 10세기까지도 존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명문 유물을 볼 때 일반 가옥의 건물지가 아니라 동궁의 관아 건물이거나 궁궐과 관련이 있는 부속 건물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앞서의 검토들에서 확인했듯이 월지궁이 왕위계승권자의 거처임이 분명한 만큼 월지 인근을 동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월성 동남편 인왕동 왕경 유적의 경우 또 다른 월성의 확장으로 추정되며, 이곳 건물지들의 규모를 볼 때, 주로 관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인왕동 왕경 유적과 함께 검토되어야만 하는 것은 ‘南宮’과¹⁰⁵⁾ ‘北宮’의¹⁰⁶⁾ 존재이다. 이들의 실체에 접근한다면, 동궁과 월지궁의 위치와 운영 방식의 구체적 양상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연구에 한계가 되고 있다. 추후 새로운 자료의 발견을 기대한다.

이상에서 부군의 성격과 실체를 추적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라 월지궁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본고는 지면 관계상 헌덕왕대 부군의 실제 규명에 필요한 주요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822년(헌덕왕 14)의 太子妃 貞嬀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논고에서 다룰 예정이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舊唐書』 『文苑英華』 『新唐書』 『全唐文』 『冊府元龜』

韓國古代社會研究所(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이능화(편), 조선불교통사 역주편찬위원회(역), 『역주 조선불교통사4』,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雁鳴池 發掘調査報告書』, 1978.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月城 地表調査報告書』, 200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東宮과 月池Ⅱ 발굴조사보고서』, 2014.

10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4, 101쪽.

103)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Ⅱ: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2차) 발굴조사』, 2014.

104) 김병곤, 앞의 논문, 2015.

105) 이현태, 「신라 ‘南宮’의 성격: ‘南宮之印’명 기와의 출토지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1, 2011 참조.

106) 전덕재,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2009, 218~223쪽 참조.

-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 遣唐使研究』, 一潮閣, 1997.
- 김기덕, 『高麗時代 封爵制 研究』, 청년사, 1998.
- 신정훈,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한국학술정보, 2010.
- 李基東,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 李基白,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96.
- 이문기,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15.
- 井上秀雄, 『新羅史の基礎研究』, 1974, 東出版.
-
- 강은영, 「고대 일본의 東宮에 관한 연구」, 『일본역사연구』 44, 2016.
- 高敬姬, 「新羅月池出土在銘遺物에 對한 銘文研究」, 동아대석사학위논문, 1993.
- 高敬姬, 「雁鴨池名稱에 대한 考察」, 『考古歷史學志』 16, 2000.
- 김병곤, 「雁鴨池의 月池 改名에 대한 再考」, 『역사민속학』 43, 2013a.
- 김병곤, 「신라 헌덕왕대의 副君 秀宗의 정체성과 太子」, 『東國史學』 55, 2013b.
- 김병곤, 「신라 東宮의 역할과 영역: 임해전 및 안압지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20, 2015.
- 金福順, 「新羅 下代 華嚴의 1例: 五臺山事蹟을 中心으로」, 『史叢』 33, 1988.
- 김영미, 「統一新羅時代 阿彌陀信仰의 歷史的 性格」, 『韓國史研究』 50·51, 1985.
- 金昌謙, 「新羅時代 太子制度의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13, 1993.
- 박광연, 「한국 오대산신앙 관련 자료의 재검토: 『삼국유사』 기록의 비판적 해석」, 『사학연구』 118, 2015.
- 朴景子, 「統一新羅時代 雁鴨池 造景樣式에 關한 研究」, 『文化史學』 4, 1995.
- 박미선, 「新羅 五臺山信仰의 成立時期」, 『韓國思想史學』 28, 2007.
- 서정목, 「『삼국유사』의 淨神王·淨神太子에 대한 재해석: 『삼국유사』 권3, 탑상4 「대산 오만 진신」과 「명주 오대산 보질도 태자 전기」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19, 2015.
- 선석열, 「신라 헌덕왕대의 정치과정과 정교부인의 혼인 문제」, 『新羅文化』 48, 2016.
- 손흥호, 「9세기 전반 신라의 정치동향과 충공의 역할」, 『韓國古代史研究』 83, 2016.
- 辛鍾遠, 「新羅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 『崔永禧先生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탐구당, 1987.
- 염중섭, 「『三國遺事』 五臺山 관련 기록의 내용분석과 의미 I: 慈藏의 文殊信仰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01, 2011.
- 尹武炳, 「新羅王宮考」,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49: 1, 2010.
- 전덕재, 「신라 東宮의 변화와 臨海殿의 성격」, 『사학연구』 127, 2017.
- 鄭在鍊, 「新羅 東宮의 苑囿에 對한 考察」, 『考古美術』 138·139, 1978.
- 曹凡煥, 「新羅 下代 憲德王의 副君 설치와 그 정치적 의미」, 『震檀學報』 110, 2010.
- 曹凡煥, 「신라 중대 聖德王의 왕위 계승 再考: 三國遺事 의 五臺山事蹟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43, 2015.

- 朱甫喲,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51, 2008.
- 최연식, 「『삼국유사』 소재 오대산 관련 항목들의 서술 양상 비교」, 『서강인문논총』 44, 2015.
- 최영성, 「月池宮 관련 자료 재검토: 東宮은 太子宮이 아니다」, 『東洋古典研究』 55, 2014.
- 최재영, 「隋唐長安城 東宮의 구조와 기능: 魏晉南北朝 都城의 東宮과 연관하여」, 『역사와 세계』 51, 2017.
- 최홍조, 「新羅 哀莊王代의 政治變動과 金彦昇」, 『韓國古代史研究』 34, 2013.
- 최홍조, 「신라 神行禪師碑의 건립과 그 정치적 배경」, 『木簡과 文字』 11, 2013.
- 韓炳三, 「雁鴨池 名稱에 關하여」, 『考古美術』 153, 1982.
- 홍기승, 「경주 월성해자·안압지 출토 신라목간의 연구 동향」, 『木簡과 文字』 10, 2013.
- 홍승우, 「문헌으로 본 新羅의 東宮과 그 운영」, 『문헌으로 보는 신라의 왕경과 월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
- 岡部毅史, 「六朝建康東宮攷」, 『東洋史研究』 72: 1, 2013.
- 岡部毅史, 「漢晉五胡十六國期の東宮と西宮」, 『中国都市論への挑動』, 汲古書院, 2016.
- 木村誠, 「新羅の宰相制度」, 『人文學報』 118, 1977.
- 三池賢一, 「新羅內廷官制考(下)」, 『朝鮮學報』 62, 1972.

* 이 논문은 2017년 11월 20일에 투고되어,
 2017년 12월 14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8년 1월 1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월 22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A Study on Shilla Bugun and Wolji-Gung**

Hong, Suengwoo*

In order to confirm that Wolji-Gung, appearing in SamgukSaki and Inscriptions for Jijeung-Daesa, is the name of Shilla Dynasty's East Palace which is the residence of royal successor Taeja, I researched the nature of Bugun which is the official position King HeungDeok became in 822.

First, I analyze the official titles for royal family written on biography of Prince Bojildo contained in SamgukYusa. It revealed that Bugun is the title of the successor to the throne. But it is not just different name of Taeja but the Specific Nomenclature used by King HeonDeok.

King HeonDeok robbed the throne from his nephew. But he did not notify the Tang Dynasty his self crowning. He just sent a envoy and informs he is legitimate royal successor. But he is already known as a uncle of previous king named Aejang, so he did not use the official title called Taeja. He used Buwang as a title of royal succesor, but it's nature is same to Taeja. Later, he made his little brother King HeungDeok a royal succesor, and titled as Bugun.

In conclusion, Bugun is the official title of a royal succesor of Shilla Dynasty used during the reign of King HeonDeok and it is clear that Wolji-Gung the residence of Bugun is the other name of palace of royal successor called East Palace.

[Key Words] Bugun, Taeja, Buwang, Wolji-Gung, East Palace, King HeungDeok, King HeonDeok

* Adjunct Professor, Myongji University